

오피니언

진중권의 세상보기



박근혜는 민주주의자인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됐던 박근혜 후보의 대학 강연은 엉뚱하게 학생 강제동원 시비만 낳은 채 허무하게 끝났다.

자아(alter ego)다. 따라서 박정희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

하고, 반드시 대답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닌가.

가령, 과거사에 대해 일본정부가 이렇게 말한다 고 해 보자. "한일 사이에는 과거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의 정당성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신념은 뿌리 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친일에서 좌익에서 반공으로, 그의 사상적 행각은 매우 복잡하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물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위함인가? 아니다.

박정희와 박근혜는 그저 혈육의 관계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박정희가 '정치인' 박근혜에게는 "선배이자 스승이며 나침반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

오를 새누리당 공보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갈라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특정 후보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할 자격과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긴급한 질문이다.

종고칼럼



강상원

가끔 나는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을 찾아가 짧은 휴식을 취하곤 한다. 자주 가는 곳이 광주에서 가까운 순창골 강천사이다.

흡족하게 배를 채우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주방에서 소박한 시골 아낙네처럼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서 돈을 받았다.

야 한다. 그렇다면, 주인의식이란 무엇인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삶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일한다.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성으로 일을 했다. 그는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윤이 나게 닦아놓곤 했다.

기고



노희용

창극이 열린 곳이었다. 약을 곁들여 팔면서, 어머니 차마 끝을 잡고 따라간 장터 풍경은 늘 왓차지컬하면서 재미가 묻어났다.

상에선 가슴 아린 슬픔으로 다가선다. 그 옛날, 장터는 결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의 공간에 머물지 않았다.

다. 대인예술아시장이 열릴 때마다 상인들과 상주예술가, 외부예술가, 일반시민이 참여해 박적지근한 아시장을 연출한다.

그로 미테의 레지던시작가 전시도 만날 수 있다. 달달이에 소원빌기, 글썽에 소망 글쓰기, 나도 작가-솜씨 뽐내기 등이 준비돼 있다.

폭 2.3m 주차공간 비좁아 자동차 자주 긁히고 불편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끼고 당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옆 차가 문을 열 때 그 문쪽에 의해 내 차의 문쪽을 찍히는 경우이다.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드나 일반 주차장의 면적을 넓혀야 하는데, 이게 여전히 주차장 규정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차의 찍힘이 계속 재발하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차는 계속 커졌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나온 승용차가 엘란트라나 아반떼 같은 게 있는데 그 후 나온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같은 차들은 그 덩치가 장난 아니게 커졌다.

대인시장은 한때 호남을 대표하던 큰 시장이었다. 양동시장이 흥어와 야채로 유명했다면 대인시장은 건어물과 약재상으로 유명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시설

불법사채업 '숨방이 처벌' 더 이상 안 된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법사채가 끊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이 나 집행유예 등 '숨방망이 처벌'에 그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명만 빌려 또다시 불법대부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주위의 무관심 속에 '지옥 같은 삶'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5·18이 공산혁명'이라는 책 돌린 범원장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두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관사들에게 배포해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깨트리면서 세상에 나와, 압제의 칼을 휘두른 무시무시한 법률"이라고 적혀 있다. 박 법원장은 내부 논란이 일자 관사들에게 "무슨 책임자 잘 모른 채 배포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정 의도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無等鼓

33세로 요절한 가수 김정호는 광주 북동천교회 옆에서 태어나 수창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 서울로 전학할 때까지 대인동에서 살았다.

아쟁과 가야금, 첼로를 두들기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에 혼을 담아내려 했다. "간다, 간다, 정든 님 떠나간다"로 시작되는 "님"은 그의 마지막 음반인 4집에 실린 곡으로, 죽음을 예견한 상여소리를 연상시키는 선율이다.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